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06.8.21(월)-22(화)간 제1차 한-UNDP 정책협의회가 국제연합대표부에서 개최되어 공동사업 선정 및 양측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 아 래 -

1. 핵심 내용

- 지난 4월 체결된 한-UNDP Partnership Framework Agreement”에 따라 1차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총 600만불 규모의 4개(아프리카 2개, 아시아 2개) 개도국원조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고 그 중 3개 사업에 대한 Cost-sharing Arrangement에 서명함.
- 금번 협의시 새로운 제안 내용이 포함된 아프리카 지역대상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계획서 접수할 예정
- 우리측이 제기한 2008년도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 UNDP측은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 바, 양측은 우리나라의 2008년도 집행이사국 진출과 함께 현재 개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연간 1백만불)의 자발적 기여금을 증액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아울러 박석범 국제경제국장(현 KOICA 이사)은 UNDP 서울사무소의 성격을 현재의 개도국 주재사무소에서 공여국(선진국) 주재 연락사무소로 성격을 바꾸는(re-profiling) 문제에 대해서도 UNDP측에 검토를 요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UNDP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기로 함.

- 우리측의 ODA정책수립 및 집행·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하여 UNDP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한국측이 UNDP 사무국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상기 관련 Gilbert Houngbo UNDP 사무차장보 겸 아프리카국장은 빈곤감축 및 MDG 달성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개발정책수립지원,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사업지원을 위해 우리측 파견관이 UNDP 아프리카국에 근무토록 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논의 사항

가. 공동사업 선정

■ UNDP측이 제시한 사업중 우리측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2개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시작할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아프리카 사업(2개) :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Trade Policy Formulation and Negotiation” 및 반부패 관련 사업(추후 사업 계획서 접수 예정)

- 아시아 사업(2개) : “Building Anti-Corruption Capacities for Implementing the MDGs” 및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DGs Monitoring System in Mongolia Project”

■ 상기 선정된 사업중 아프리카 지역 반부패 관련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에 대한 Cost-sharing Arrangement에 서명함.

- UNDP측은 상기 3개 사업에 대해 UNDP측의 재정적 기여 확대를 요청한 우리측 수정

제안을 모두 수용함(3개 사업에 대해 UNDP 측이 총 110만불을 추가 부담하고, KOICA의 구체적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상기 선정된 사업 외에 사업 내용이 충실하고 긍정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캄보디아 빈곤감소 관련 사업은 차기 공동협력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합의함.

■ 아울러 우리 정부의 ODA 효율성 증대를 위한 UNDP의 사업 제안 관련,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해 OECD/DAC에 비공식적 절차인 light peer review를 신청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advocacy에 초점을 맞추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 협의회해 나가자고 함.

나. 집행이사국(Executive Board) 진출

■ 우리측은 2000년말 UNDP 수원국(개도국)의 지위를 졸업한 이후 진출하지 못한 집행이사국에 공여국(선진국)의 입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공여국 전환시 한국 UNDP 사무소의 성격 전환 등에 UNDP 측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UNDP Bruce Jenks 사무차장보 겸 재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국장은 우리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주한 UNDP 사무소를 공여국 연락사무소로 reprofiling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동 국장은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국 진출을 위해 우리의 지역적 소속을 수원국 위주의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불란서, 영국 등으로 공여국으로 구성된 서유럽 및 기타국가군(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집행이사국들과 함께 서유럽 및 기타국가군에 소속된 집행이사국 그룹과 모두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함.

※ 공여국 그룹 국가의 최소 연간 자발적 기여금은 490만불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00만불 이상의 자발적 기여금을 UNDP에 공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 양측 업무 소개

- UNDP측은 UNDP의 개발정책 및 개도국 개발지원사업, MDG달성전략 등 업무 전반(아시아·아프리카국 업무 소개 포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Result-based Management, 재무관리·기금회계 및 보고 절차 등 UNDP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관련 자료 대표단 지참 귀국 예정).
- 우리측은 국제경제국장이 최근의 ODA정책방향, 항공권 연대기금, 아프리카이니셔티브 등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정진규 경제기구과장과 장현식 KOICA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ODA 규모확대, ODA집행체제 효율화 방안, 심사평가능력제고 추진현황 및 상세한 KOICA 사업 활동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함.

3. Ocampo 사무차장 면담

- 동 정책협의회 후, 우리측 수석대표는 Ocampo UNDESA사무차장을 예방하고 금번 한-UNDP간 정책협의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인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동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에 설립 예정인 UN 가버넌스 센터와 관련하여 한국을 9월 중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개도국 지원 노력과 국제개발원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사의를 표명함.

4. 관찰 및 평가

- 양측은 금번에 처음으로 ‘한-UNDP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금번 마련된 협력 모멘텀을 살려 내년초부터 추진될 공동사업 집행·평가 등 구체적 사업점검 및 개발원조지원 능력제고를 위한 정책협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내년도 정책협의회는 1차년도 사업진행에 대한 중간보고 및 구체사업에 대한 공동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공동협력사업 선정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ODA집행기관인 KOICA가 UNDP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디자인에 참여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업에 집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KOICA가 구체적인 사업참여방안을 수립하여 본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함.

■ UNDP측은 국제개발원조기구에서 공여국의 지위로 국제원조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재 모두 OECD/DAC 회원국들인 바,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UNDP 집행이사국 진출과 병행하여 OECD/DAC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동 지적과 관련 향후 UNDP 집행이사국 진출추진과 더불어 OECD/DAC가입 일정을 조속 확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 주국제연합대표부]